

DT 추진 협의회 — 1차 회의 메모

작성: 박서연 (DT추진 TF) | 배포: 협의회 참석자

2026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본사 5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협의회 1차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김상철 본부장(주관), 이정민 IT실장, 박서연 DT추진 TF 팀장, 정유진 영업기획팀 부장, 한태훈 생산관리팀 차장, 외부 자문으로 클라우드솔루션즈의 황민호 컨설턴트가 참석했다. 사외이사인 임도현 박사는 일정상 불참했고 추후 회의록을 공유하기로 했다.

회의는 오후 2시 5분 김상철 본부장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본부장은 올해 사업계획에 DT 추진이 핵심 과제로 포함된 배경을 짧게 언급한 뒤, 협의회 운영 원칙으로 월 1회 정례화와 안건당 의사결정 책임자 명시를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했다.

이어 박서연 팀장이 1분기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박 팀장은 사내 134개 자동화 후보 과제를 식별해 분류표를 작성했고, 그중 약 78%가 사내 보유 도구로 구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다만 데이터 거버넌스 표준이 부서별로 달라 일부 과제는 착수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로 언급했다.

이정민 실장은 데이터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 IT실이 5월 말까지 표준 가이드 초안을 내겠다고 답했다. 정유진 부장은 영업 부문에서는 고객사별 데이터 보관 정책이 달라 표준 가이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영업기획팀이 별도로 예외 사항을 정리해 5월 둘째 주까지 회신하기로 했다.

한태훈 차장은 생산관리 영역의 PoC 후보 두 건(설비 알람 자동 보고, 정비 이력 Q&A)을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두 건 모두 의미 있다고 공감했고, 다음 회의에서 PoC 일정과 담당자를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황민호 컨설턴트는 외부 사례를 짧게 공유했다. 동종 업계 A사가 비슷한 추진 단계에서 거버넌스 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의사결정 속도를 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참고하겠다고 답했고, 위원회 분리 여부는 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차기 일정을 잡았다. 2차 회의는 5월 19일(화)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박 팀장이 회의록을 정리해 4월 24일(금)까지 참석자에게 회람하고, 이정민 실장이 데이터 거버넌스 가이드 초안 일정을 5월 말로 확약했다. 정유진 부장은 영업 예외 사항을 5월 8일(금)까지 회신하고, 한태훈 차장은 생산 PoC 두 건의 상세 계획을 다음 회의 전까지 작성해 공유하기로 했다.

회의는 오후 3시 35분에 종료되었다.